

현장 보고

지역의 통일교육 운영 사례

정호성 (강원도철원교육지원청)

강원평화교육원(이하 교육원)은 철원군 정연리 및 인접 지역의 초등학교 학생들의 교육 장소였던 「정연초등학교」 폐교 후 2002년에 리모델링을 거쳐 지금의 장소로 이전 개원되었다. 개원 이후 20여 년간 강원도 지역 초·중·고 학생들에게 입소 교육을 중심으로 통일과 평화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교육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2022년에 ‘강원학생통일교육수련원’이라는 기관 명칭을 ‘강원평화교육원’으로 변경하여 평화에 기반한 통일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I. 변화가 필요한 통일교육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다양한 교육내용 중 상당수 교사들이 불편하게 여기는 주제 가운데 한 가지는 매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통일교육」이다. 요즘 학생들은 통일을 왜 해야 하는지, 평화가 왜 중요

한지를 의미 있게 받아들이지 못한다. 그런 이유로 분단의 과정과 전쟁의 아픔을 경험했던 세대들, 그들의 상처를 그대로 전달받는 것이 중요했던 어른 세대들과 다르게 요즘 학생들은 통일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통일을 해야 한다는 생각보다 통일을 해서 더 나빠지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의구심마저 가지고 있는 학생들에게 통일을 의미 있게 가르치는 것은 무척이나 어려운 일이다.

교실 수업의 과정에서 학생들에게 「통일의 필요성」을 이야기를 할 때, 이어지는 질문은 늘 ‘왜 통일을 해야 하는데요?’였다. 주변의 현상들에 대하여 의문을 품듯 「통일」이라는 주제에 대해 궁금함을 갖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아이들이 가지는 통일에 대한 “왜?”라는 물음은 ‘통일의 필요성에 공감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불편함을 느끼게 한다. 그래서 ‘학생들의 변화에 맞게 통일교육도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70~80년대 반공·안보 중심의 통일교육과 비교할 때, 지금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통일교육은 내용적인 면에서 적지 않은 변화가 있었다. 그러나 변화된 내용을 전달하는 방법적인 면에서는 아직도 부족함이 많이 느껴진다. 여전히 학교에서의 통일교육은 교실이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교사가 주도하는 강의식 학습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통일의 필요성 등에 대하여 학생들의 공감을 이끌어 내기 보다는 사실 전달을 위한 지루한 과거의 이야기들과 큰 의미를 갖지 못하는 지식적인 내용들로 시간을 메워가고 있는 학교 통일교육의 현실을 부인할 수 없다. 또 자의식이 강하고 개성이 뚜렷한 요즘 학생들의 성향을 반영하지 못한 활동들은 통일교육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과 공감을 이끌어 내기에는 아직도 부족함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통일교육에는 변화가 필요하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어떻게 통일에 공감하게 할 것인가?’ 하는 물음에 답하는 새로운 방법을 내놓아야 할 때다.

내용적인 변화는 위로부터 교육과정 개정에 발맞춰 제시되지만, 「통일」을 좀 더 의미 있게 공감하도록 하기 위한 통일교육의 방법적 변화는 학생들과 직접 마주하여 활동하고 학생들의 반응을 가까이에서 반영할 수 있는 교육의 현장에서부터 변화가 시작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각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통일교육 기관들은 현실적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학교 통일교육의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하며 학생들에게 직접적인 통일교육을 지원하는 기관으로서 과거의 통일교육에서 벗어날 수 있는 모델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Ⅱ. 통일교육에서 지켜졌으면 하는 세 가지

돌이켜보면 통일교육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용적 변화가 많았던 주제였던 것 같고, 학교에서 운영되는 교육 활동 중 ‘정치’라는 상황에 영향을 많이 받았던 활동이 아닌가 생각하게 된다. 그리고 모든 변화가 좋은 방향이었다고 말할 수 없을 것 같다. 그래서 미래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통일을 실현 가능한 목표로 받아들이고 준비할 수 있도록 통일교육의 내용을 구성할 때, 다음의 세 가지가 지켜졌으면 한다.

가장 먼저 통일교육이 북한 실상 알기로 채워져서는 안될 것 같다. 그리고 북한 실상 알기가 남한사회의 우월감 갖기가 되어서는 안될 것 같다. 북한 사회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와 다르지 않다. 단지 현재 북한의 경제적 수준이 우리와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지원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인 것은 맞지만 그런 경제적 상황 때문에 우리가 북한 사회에 우월감을 가지게 된다면, 북한 사회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좁아질 수밖에 없다. 우리가 대화를 원한다면, 상대를 동등한 입장에서 받아들

일 수 있어야 한다. 우리가 바라는 통일은 남한 사회가 우월감을 갖고 북한 사회를 통합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이다.

통일교육에서 통일의 필요성을 경제적인 가치로만 접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통일의 필요성을 설명할 때, 가장 쉬운 접근법이 통일된 우리 나라가 얻게 될 경제적인 효과를 강조하는 것이다. 막연하게 느껴지는 통일의 필요성을 설명하는데 있어 경제적인 효과 만큼 관심을 끌 수 있는 이유는 없다. 하지만 경제적인 효과에서 통일의 필요성을 찾는다면, 경제적 이익이 없다고 평가될 때 통일은 필요가 없는 것이 되어버리고 만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 이유가 통일의 필요성이 되어서는 안된다. 통일은 경제적인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닌 우리의 삶과 국가 전반에 영향을 주고 있는 분단이라는 현실적인 어려움에 대한 극복 및 같은 언어, 같은 역사를 공유하는 하나의 민족으로서 통일된 우리 나라의 발전적 미래를 위하여 통일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시킬 필요가 있다. 핵심적 목표와 부수적인 효과가 혼돈되어 전달되지 않아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통일을 환상적인 말로 설명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통일은 영화나 동화책 속에서나 존재하는 상상이 아닌 우리가 언젠가는 이루어야 할 현실적인 목표이다. 우리는 영화를 보고 환상적인 결말에서 재미를 느끼지만, 그것을 현실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반대로 실화를 토대로 만들어진 영화를 볼 때 더 큰 감동과 가능성을 느끼고는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통일을 이야기할 때, 구체적이지 못한 막연한 환상을 갖도록 해서는 안될 것이다. 환상은 그냥 환상일 뿐이다. 통일이 환상이나 상상의 하나로 인식되기 시작하면 통일의 필요성을 이해하면서도 통일은 이루어질 수 없는 꿈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 통일은 환상이나 상상이 아닌 현실에서 실현되어야 하는 목표이며, 현실적인 문제와 어려움은 극복해야 하는 노력의 과정이다.

Ⅲ. 통일교육 추진 방향

우리 교육원의 통일교육 추진 방향은 지식으로 학습하거나 과거 반공·안보 중심 통일교육이 아닌 통일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능력을 키우는 통일교육이라고 하겠다. 지난날 학교에서 해온 통일교육이 학생들에게 분단의 과정을 지식적으로 전달하거나 이념에 바탕을 둔 대립적인 통일교육이었다면, 오늘날 통일교육은 우리 민족의 분단 상황을 이해하고 통일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교육, 더 나아가 통일의 방법으로서 ‘맹목적 통일’이 아닌 통일 이루는 과정에서 누구에게도 상처가 되지 않는 ‘평화에 기반을 둔 통일’에 공감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세대로서 아이들이 현재의 분단이라는 상황 인식에 머무르지 않고 통일된 우리나라의 발전적인 모습을 상상하고 준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하지만 대다수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통일교육은 변화된 통일교육의 흐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미래의 통일된 우리나라의 모습을 의미 있게 전달해 주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는 교실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강의식 통일교육, 학습자들의 관심에 접근하지 못하는 지루하고 어려운 통일에 관한 이야기들이 적지 않은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학교 통일교육에 대한 반성에서 교육원의 통일교육 추진 방향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여 추진하였다.

첫째, 지역의 다양한 역사 유적자원을 활용한 체험 중심 통일교육 추진이다. 책과 사진으로 이루어지는 교육이 현장에서 직접 보고 느끼는 활동의 효과를 넘어서는 수 없다. 교육원이 있는 철원군은 6·25전쟁 이전의 북한 유적지뿐만 아니라 6·25전쟁의 격전지로서 철원군 곳곳에 분단의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탐방지가 있으며, 남북분단의 상황 속에서 북한에 가장 근접할 수 있는 최북단 지역으로 북한지역을 가까이에서 바

라볼 수 있는 장소로 교실에서 설명으로는 이루어지기 어려운 현장을 좀 더 가까이에서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 지역이다. 따라서 교육원의 통일교육은 지역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한 체험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설명으로만 전달할 수 없는 경험을 제공해 준다. 무엇보다 현장 체험이 단순히 현장을 가보았다는 탐방지 방문으로 만족하는 것을 넘어 학습자 수준에 적합한 탐방지 이야기로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체험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역사 현장을 깊이 있게 온몸으로 느낄 수 있게 하는 통일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다음은 주어지는 지식이 아닌 융합적으로 표현하는 통일교육의 추진이다. 과거 다수의 학교에서 이루어져 왔던 통일교육은 지식적인 접근, 강의식 전달 및 학생들의 관심이 반영되지 못한 어렵고 지루한 통일 이야기들이 주를 이루어 왔고, 이와 같은 학교 통일교육은 학생들에게 통일에 대한 공감을 이끌어 내지 못했고 공감되지 못한 이해는 학교의 학생들에게 통일을 현실과는 동떨어진 주제로 인식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과거의 학교 통일교육은 통일교육의 목적이라 할 수 있는 ‘통일을 이룩하는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기르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었으며 이와 같은 방식의 통일교육에서 학생들의 역할은 지식을 전달받기만 하는 소극적인 위치에 머물 수밖에 없었다. 교육원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통일교육의 추진에 있어 소극적인 방법으로 참여할 수밖에 없었던 학생들의 역할을 의미 있게 활성화하고자 기존의 통일교육에서 벗어나 평화와 통일에 대한 ‘나’의 생각을 주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학생들의 흥미와 관심을 반영한 융합 활동으로 다양한 표현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융합 활동이 일회성 체험이 아닌 통일에 대한 가치관 형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안내의 과정을 포함하도록 구성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통일’을 목표로 하는 교육이 아닌 ‘평화 기반 통일’에 공감하는 통일교육의 추진이다. 남북분단 및 6·25전쟁이 끝난 후 70여 년이

라는 세월이 지나 ‘지금 여기’를 살아가는 학생들은 분단과 전쟁의 상처를 경험했던 과거의 세대들이 느끼는 ‘통일’에 대한 인식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인식의 차이는 통일교육이 지향해야 하는 방향도 변화되어야 함을 보여줌과 동시에 과거의 맹목적인 통일, 방법을 고려하지 않는 통일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야 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통일교육의 변화에서 새로운 접근 주제는 ‘평화’에 대한 이해이며, 평화가 기반이 되는 통일의 필요성에 공감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기 위하여 교육원에서는 ‘평화’에 대한 이해를 목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쟁’의 반대개념으로서의 평화와 함께 우리의 주변에서 늘 존재하는 사회 구성원들과의 관계에서 필요로 하는 평화에 대한 이해로서 타인과의 관계 문제에도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하고자 하고 있다.

Ⅳ. 통일교육 추진 사례

교육원은 지금 대한민국 최북단 강원도 철원군 정연리에 있으며, 접경지라는 지리적 특징을 고려해 볼 때, 분단된 우리나라 상황에서 접근할 수 있는 가장 북쪽을 의미한다. 교육원이 북한 지역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까닭을 여러 가지로 들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는 통일교육에서 중요한 분단의 현장을 가까이에서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교육원이 운영되고 있는 강원도 철원군 정연리는 군사적인 목적으로 인해 설정된 「민간인통제선」 안쪽에 위치하고 있어 교육원을 찾아오는 학생들로 부터 검문소를 지나오기 위한 절차를 경험하는 것만으로도 말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남북분단의 ‘긴장감’을 느낄 수 있었다고

표현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었다. 사실 현장이 아닌 학교 교실에서 학생들에게 남북분단으로 인한 어려움, 긴장감을 말로 설명하기에는 부족함이 있었고 그 상황을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분단의 현장에서 직접 체험으로 느낄 수 있는 것과는 분명한 차이가 존재한다. 그리고 철원은 일제강점기의 근대문화유적 및 노동당사 등과 같은 6.25전쟁 이전의 북한 유적지와 전쟁의 상처를 고스란히 품은 백마고지 등과 같은 6.25전쟁의 유적이 남아있다. 그리고 6.25전쟁 이후 남북 분단의 과정에서 경쟁적으로 만들어 놓은 많은 군사 시설을 볼 수 있는 장소다. 더욱이 접경지역에만 있는 GOP 철책선에 가장 가까이 다가가 볼 수 있어서 분단의 긴장감을 느낄 수 있으며, 지금은 분단으로 갈 수 없는 북한지역을 바라볼 수 있는 소이산, 평화전망대 등을 탐방할 수 있기 때문에 교육원은 지역의 특징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하여 현장 탐방을 통일교육의 중요한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다.

현장을 직접 찾아가 이루어지는 탐방 활동은 학생들이 선호하는 통일교육 방법 중의 하나(「2021년 학교 통일교육 실태조사 결과」, 통일교육원, 2022)다. 교실이라는 제한적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설명적 학습으로는 체험하기 어려운 현장감을 느낄 수 있는 통일교육의 중요한 방법이다. 하지만 탐방이 단순하게 현장을 다녀왔다는 것에서 마무리된다면 탐방의 의미를 찾을 수 없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원에서는 현장 탐방을 할 때, 탐방하는 곳에 얹힌 이야기를 학생 수준에 맞게 풀어서 들려줌으로써 한층 더 의미 있게 기억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탐방하는 곳에서 통일의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스토리가 있는 탐방’으로 운영해왔다. 학생들이 선호한다고 해서 그 결과마저도 모두 효율적이라 할 수 없다. 그렇지만 선호하기 때문에 잘 짜여진 탐방은 학생들에게 그만큼 의미 있게 다가가기 쉽다. 물론 탐방지에서 이루어진 모든 이야기들이 학생들에게 의미있는 기억으로 남아있지 않다는 것은 간단한 질문만으로

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래도 학생들은 현장 탐방으로 우리나라가 분단되어 있다는 것을 눈으로 체험할 수 있었고, 지금 우리나라가 분단된 상황이라는 것을 좀 더 의미 있게 느낄 수 있었다는 평가를 설문지에 남겨주었다.

2020년부터 갑작스럽게 찾아온 코로나19라는 감염병은 그동안 당연히 이어져 왔던 교육원의 프로그램에도 적지 않은 변화를 필요로 하게 했다. 학생들의 입소교육을 중심으로 운영되었던 우리 교육원은 감염병 방역의 부담을 덜고 학생들의 통일 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방법으로 「학교로 찾아가는 교실」을 운영하게 되었다. 찾아가는 교실의 운영방식은 교육원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을 학교로 찾아가 학교 통일교육을 지원하는 것으로 철원이라는 현장을 떠나 학교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탐방은 운영할 수 없게 되었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탐방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교육 방법을 모색하게 되었고 다양한 현장 탐방지를 가상현실(VR) 사진으로 「VR탐방」을 만들어 활용하였다. 사실 현장 탐방은 외부의 환경적 영향을 많이 받는 교육 방법으로 날씨가 좋지 않을 경우 운영을 하지 못하는 때가 종종 있었기 때문에 외부적 요소에도 운영할 수 있는 탐방 대체 프로그램의 개발이 강하게 요구 되었다. VR탐방은 기존의 사진, 동영상과 같은 단순한 미디어 자료와는 다르게 탐방 장소를 좀 더 현실감 있게 간접경험을 제공할 수 있어 현장 탐방 진행의 어려움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었고, 학생들도 현실감이 떨어지는 미디어 자료를 보는 것 보다는 실제감 있게 실내에서도 현장 탐방을 진행할 수 있는 「VR탐방」에 관심과 흥미를 가지고 활동할 수 있었다.

교육원의 통일교육 운영 내용은 교육원 프로그램에 참가 하는 학생들

에게 학습으로 인식하여 부담을 주지 않는 것을 가장 우선으로 삼았다. 이는 학생들이 통일교육을 학습으로 받아들여 통일교육에 대한 거부감을 줄여주기 위해서이다. 통일교육에 대한 부담과 불편은 통일교육의 목적이라 할 수 있는 통일을 이루는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기르는 것을 어렵게 할 뿐이다. 가치관과 태도의 변화는 통일의 필요성, 평화의 가치에 대한 공감에서 시작된다. 이에 교육원은 더 쉽게, 더 즐겁게, 더 의미 있게 통일이라는 주제에 다가갈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운영하고 있다. 다양한 운영 방법 중 학생들이 활동을 학습으로 인식하지 않고 즐겁게 참여하기 위하여 가장 많이 이용되는 방법은 게임 등의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다. 게임은 꼭 통일교육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교육 활동에서 많이 활용되는 방법으로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지만, 통일교육의 결과를 의미가 아닌 재미로 왜곡할 가능성이 높은 활동이라는 양면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게임 활동은 내용 구성에 더 많은 고민과 섬세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 다시말해, 활동의 결과가 ‘즐거웠다’ 혹은 ‘재미있었다’에 머무른 상태에서 마무리 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게임 활동을 하면서도 의도한 통일교육 내용이 내면화되도록 하기 위하여 재미와 의미 사이의 적절한 조절을 통하여 활동이 게임으로만 인식되지 않도록 하였다. 교육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은 「통일장학퀴즈」, 「통일OX게임」 등의 게임 활동이 끝난 후 ‘재미있는 게임이었고 우리나라의 분단 상황을 이해할 수 있었다.’ 또는 ‘통일의 필요성에 공감할 수 있었다.’라는 반응을 이끌어 낼 수 있었다.

통일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있어 학생들이 학습으로 인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지만 이해가 필요한 내용까지 설명적인 방법을 완전히 벗어나서 운영할 수는 없다. 하지만 학생들의 관심과 흥미를 불러일으키지 못하는 설명적인 수업으로는 기대했던 이

해를 이끌어 내기란 쉽지 않다. 특히 나이가 어린 학생들에게 일반적인 설명의 방법으로 어려운 통일교육의 내용적 요소를 이해시키기는 더욱 어렵다. 그렇다고 교육원의 특성상 입소를 원하는 다양한 연령층의 학생들에게 선택적으로 교육을 진행할 수 없다. 그래서 통일교육에서 이해가 필요한 부분들에 있어 내용의 이해를 목적으로 하기 보다는 학생들에게 설명적인 방법으로 전달된 내용들을 내면화하여 표현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운영하였고 표현활동에는 학생들의 흥미와 관심 요소를 고려하여 「머그컵 만들기」 「핀버튼 만들기」 등의 표현활동과 연계한 융합프로그램으로 운영하여 이해를 내면화하는 과정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다. 융합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주의할 점은 융합 활동이 주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융합적 활동을 운영하는 이유는 학생들에게 전달된 어려운 내용적 요소를 자신의 생각으로 표현한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지 ‘작품’을 만드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결과물의 완성도에 가치를 두어서는 안 된다. 융합 활동을 통하여 학생들은 통일, 평화 등과 같은 설명적 내용에 대하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표현하며 의미를 다시 되새길 수 있었고 학생들은 전달된 내용에 대하여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었다.

과거에 진행되었던 통일교육은 강의식 설명이 많았다. 학생들은 늘 수업의 대상으로 통일 관련 이야기들을 지식의 형태로 전달받기만 했다. 통일교육 지원법에는 통일교육을 ‘통일을 이룩하는 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기르도록 하기 위한 교육을 말한다.’라고 정의했듯이 통일교육은 ‘통일’과 관련한 다양한 지식을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치관과 태도를 기르는 것이 중요한 교육이다. 하지만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과거와 같은 설명적인 통일교육으로는 가치관과 태도를 기르기 어렵다. 가치관이나 태도는 알고 있는 것들을 자신의 언어로 표현하고 타인과 소

통하는 과정에서 강화되고 형성되는 것이다. 그래서 교육원에서는 일방적인 전달이 아닌 평화와 통일 관련 주제를 중심으로 토의·토론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통일과 관련한 다양한 생각들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토의·토론을 진행할 때는 학생들을 섬에 던져놓듯이 발표를 강요하는 진행이 아닌 토의·토론 도구를 활용한 4~5명의 소그룹 토의·토론을 진행하였다. 토의·토론 도구를 활용한 소그룹 토의·토론은 ‘통일’과 같은 이념적인 내용을 포함한 주제에서 성향의 차이로 인해 발표 부담을 느끼는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해주었으며 더 많은 소통의 기회를 제공하여 더 다양한 생각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학생들과 통일 관련 토의·토론을 진행한 결과는 예상보다 더 많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었다. 짧은 시간의 토의·토론이었으나 우리나라 분단 상황에 대한 생각,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아이디어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며 소통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단지 토의·토론은 자칫 학생들에게 오개념을 심어주고 마무리될 수 있는 활동 방법으로 개념형성이 분명하지 않은 학생들의 오개념을 수정하여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진행해야 한다. 특히 통일과 관련된 주제들은 이념적·정치적인 내용과 분리될 수 없는 내용이므로 토의·토론에서 제시되는 학생들의 의견이 편향되지 않도록 더 신중한 진행이 필요하다.

V. 부족했지만 실천하는 통일교육

통일교육 기관에서 근무하면서 교육의 대상이 되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주변의 지인들로 부터 많이 들었던 이야기는 “이런 교육 한다고 통일이 되겠어?”라는 말이었다. 사실 이런 질문이 틀렸다고 생각하지는 않는

다. 분단된 국가의 국민으로서 우리 모두가 「통일의 필요성」을 강조하지만, 누구도 우리가 하는 통일교육의 결과로써 금방 혹은 조금 시간이 지난 후에라도 통일이 될 것이라고 가볍게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현재의 우리가 ‘이런 교육’이라고 표현되는 활동이라도 하지 않으면 통일은 더 기대할 수가 없게 된다. 우리가 통일을 원한다면 ‘이런 교육’이라도 꾸준히 실천해야 하며, 그 실천을 담보할 수 있는 것은 통일에 관한 어려운 지식이 아니라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그리고 통일교육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활동 내용과 방법들이 학생들의 통일교육만을 목표로 하기보다는 기관을 찾아주는 일반 교사들의 학교 통일교육을 변화시킬 수 있는 모델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강원평화교육원 지난 20여 년간 학생들에게 통일교육을 운영해 왔으며 지나온 시간의 과정에서 사회와 상황의 변화를 반영하여 강원평화교육원의 통일교육도 꾸준히 변화되어 왔다. 학생들이 좀 더 쉽게 통일의 필요성에 공감할 수 있는 통일교육, 일방적으로 진행되었던 과거의 방식에서 벗어나 학생들이 생각하는 통일에 대하여 표현할 수 있는 통일교육, 현재의 상황 인식에 머물지 않고 통일된 우리나라의 발전적 미래를 상상하고 준비할 수 있는 통일교육을 실천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였다. 우리 교육원이 운영해 왔던 통일교육의 성과를 수치로 표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우리 교육원의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이 남긴 말들 중, 가장 많이 접할 수 있는 내용은 “통일을 재미있게 알게 되었다.”, “통일에 대하여 관심이 생겼다.” 등 통일교육의 결과를 긍정적으로 표현한 내용들이었다. 통일에 대한 공감은 이해와 관심에서 시작되고 통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소망과 믿음으로 이어져야 하며, 통일된 우리나라의 미래를 상상하고 그에 맞는 준비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은 학자들의 유식한 말이나 어려운 지식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통일교육의 목표가 ‘통일’이라는 거대한 담론이 되어서는 안될 것 같

다. ‘통일’을 이루기 위한 목표는 국가가 추진해야 할 목표이지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통일교육의 목표와는 구분되어야 한다. 그래서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통일교육은 직접적인 ‘통일’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닌, 학생 수준에서 「통일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교육, 다음 세대로서 우리 아이들이 「통일된 우리나라의 미래를 발전적으로 상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통일교육」이 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되며, 강원평화교육원이 지난 20여 년간 운영해 왔던 활동들은 그러한 통일교육의 목표를 완성하기에 아직은 부족하지만 의미 있는 실천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정호성 (Jung, Ho-Sung)

현재 강원도철원교육지원청 장학사로 재직 중이다. 2020년 3월 1일부터 2022년 9월 1일까지 강원평화교육원 연구사로 재직하며, 강원지역 학생들과 교직원들을 위한 통일 및 평화교육을 운영하였으며, 강원평화교육원 재직 중 통일교육의 다양화 및 학교 통일교육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